

論文

『翻譯小學』과 『小學諺解』의 번역 양상 연구  
- 번역 순서의 차이를 중심으로 -

Analysis on translation patterns between *Beonyeok-Sohak* and  
*Sohak-Eonhae* -Based on the difference in translation order-

조현진(趙賢眞)\*

JO Hyunji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eal what are the differences in the linguistic order of translation of 《翻譯小學(*Beonyeok-Sohak*)》 and 《小學諺解(*Sohak-Eonhae*)》 into Korean, especially by comparing the same part of these two literatures in which the same Chinese characters (漢字) are used to express the same meaning. For comparison, certain parts were extracted from the all volumes of the existing two literatures: 《翻譯小學(*Beonyeok-Sohak*, 1518)》 whose original script is 《小學集成(*Sohak-Jipseong*)》 and 《小學諺解(*Sohak-Eonhae*, 1588)》 whose original script is 《小學集註(*Sohak-Jipju*)》.

When we look at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literatures, we can notify that the translation orders can show huge changes in nouns, verbs and adverbs. These differences are thought to arise from the following two: the differences in the writing of the original Chinese-character phrases with Korean endings (口訣文) and the differences in the perspectives or favors of the translators towards specific original Chinese phrases (漢字).

キーワード : 翻譯小學、小學諺解、翻譯、翻譯順序、翻譯樣相

Key words: *Beonyeok-Sohak*, *Sohak-Eonhae*, translation, translation order, translation pattern

\* 한국의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reizend28@hufs.ac.kr)  
新潟県立大学国際地域学部国際地域学科(reizend28@naver.com)

## 1. 서론

『翻譯小學』은 『小學集成』을 저본으로 하여 金詮, 崔淑生 등 16명이 언해하여 中宗 13年 戊寅(1518)에 10卷 10冊으로 간행되었는데 現存本은 1, 2, 5권을 제외한 3, 4, 6, 7, 8, 9, 10 일곱 권이다. 『小學諺解』는 『小學集註』를 저본으로 하여 李山海 등 31명이 언해하여 선조 21년(1588)에 6卷 4冊으로 간행되었는데 현재 内賜本 완질이 도산서원에 소장되어 있다.

『翻譯小學』과 『小學諺解』의 現存本 全卷 중 원문 漢字와 언해되어 있는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 부분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翻譯小學(1518)   | 小學諺解(1588)     |
|--------------|----------------|
| 卷三 (3b~47b)  | 卷二 (38a~78a)   |
| 卷四 (1a~28b)  | 卷三 (1a~25b)    |
| 卷六 (1b~37a)  | 卷五 (1b~34b)    |
| 卷七 (1a~50b)  | 卷五 (35a~82a)   |
| 卷八 (1a~43a)  | 卷五 (82a~121a)  |
| 卷九 (1a~108b) | 卷六 (1a~101a)   |
| 卷十 (1b~35b)  | 卷六 (101b~133a) |

<표1. 『翻譯小學』과 『小學諺解』의 동일 원문과 언해문의 대응 부분>

이처럼 『翻譯小學』과 『小學諺解』는 『小學』이라는 原典을 가지고 두 번 언해하였다. 본고에서는 『小學集成』을 저본으로 하고 있는 『翻譯小學』(1518)과 『小學集註』를 저본으로 하고 있는 『小學諺解』(1588)의 現存本 全卷 중 동일 원문 漢字와 동일 내용이 대응되는 부분을 대상으로 비교하여 두 문헌에 언해되어 있는 번역 순서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실증적으로 밝혀 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2. 『翻譯小學』과 『小學諺解』의 번역 순서 비교

한 原典이 두 번 이상 번역된 언해서의 경우 처음 번역할 때에는 意譯의 번역 형태를 취하였고 두 번째 번역할 때에는 의식적으로 直譯 형태를 취하였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意譯을 하게 되면 동일 원문의 뜻을 잃을 뿐만 아니라 註釋까지 본문에 부연하기 때문에 문장이 산만해진다. 따

라서 두 번째 번역할 때에는 오로지 原文의 漢字에 의거하여 直譯을 하고 뜻이 통하지 않는 곳에서는 夾註를 달아서 原典의 뜻을 살려서 번역을 하였다.<sup>1</sup>

『翻譯小學』과 『小學諺解』도 『小學』이라는 原典으로 두 번 언해를 하였는데 『翻譯小學』에서는 意譯 형태로 번역하였고 『小學諺解』에서는 直譯 형태로 번역하였다. 이러한 언해 형태는 언해자가 동일 원문을 기준으로 번역을 할 때 번역 순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고에서는 동일 원문을 기준으로 한 두 문헌의 번역 순서에 큰 차이를 보이는 名詞類의 번역 순서, 動詞類의 번역 순서, 副詞類의 번역 순서로 나누어 비교해 보기로 한다.

## 2.1 名詞類의 번역 순서

『翻譯小學』과 『小學諺解』를 대비해 보면 名詞類<sup>2</sup>의 번역 순서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翻譯小學』에서 名詞, 依存名詞, 名詞句, 代名詞로 번역되고 『小學諺解』에서 名詞, 副詞, 名詞句, 代名詞로 번역된다.

### <1> ‘喪’

『翻譯小學』과 『小學諺解』에서 모두 명사 ‘거상’으로 번역되는 ‘喪’의 번역 순서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에서 잘 확인된다.

(1) a. 아버지 마티 홀 거상을 三年을 홀 디니라(方喪三年이니라) <翻譯小 3:42a>

b. 거상을 곧티 헝야 三年을 홀 디니라(方喪三年이니라) <小學2:72b>

원문이 『翻譯小學』과 『小學諺解』에서 어떤 순서로 번역되는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 方 | 喪 | 三年 |
|-------|---|---|----|
| <翻譯小> | 1 | 2 | 3  |
| <小學>  | 2 | 1 | 3  |

### <2> ‘上’

『翻譯小學』에서 명사 ‘상등’으로 번역되고 『小學諺解』에서 명사 ‘상층’

으로 번역되는 ‘上’의 번역 순서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에서 잘 확인된다.

- (2) a. 상등엿 사름이오(民之上也 | 오) <翻小4:9a>  
b. 사름애 상충이오(民之上也 | 오) <小學3:8a>

원문이 『翻譯小學』과 『小學諺解』에서 어떤 순서로 번역되는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   |   |   |   |
|------|---|---|---|---|
|      | 民 | 之 | 上 | 也 |
| <翻小> | 3 | 2 | 1 | 4 |
| <小學> | 1 | 2 | 3 | 4 |

### <3> ‘適’

『翻譯小學』에서 의존명사 ‘씩름’으로 번역되고 『小學諺解』에서 부사 ‘다몬’으로 번역되는 ‘適’의 번역 순서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에서 잘 확인된다.

- (3) a. 모뻏 허므리 득윌(24a) 썩름이나라(適足爲身累 | 나라) <翻小6:24b>  
b. 다몬 지히 몸읏 힘음이 되느니라(適足爲身累 | 나라) <小學5:22b>

원문이 『翻譯小學』과 『小學諺解』에서 어떤 순서로 번역되는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   |                  |   |   |   |
|------|---|------------------|---|---|---|
|      | 適 | (足) <sup>3</sup> | 爲 | 身 | 累 |
| <翻小> | 4 | 3                | 1 | 2 |   |
| <小學> | 1 | 4                | 2 | 3 |   |

### <4> ‘工夫’

『翻譯小學』에서 명사 ‘공부’로 번역되고 『小學諺解』에서 명사 ‘工夫’로 번역되는 ‘工夫’의 번역 순서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에서 잘 확인된다.

- (4) a. 엇디 다른 사름 헤아려 검찰홀 공뷔 이시리오(豈有工夫 | 點檢他人耶 | 리오) <翻小8:15a>  
b. 엇디 工夫 | 다른 사름을 남남치 출홈이 이시리오(豈有工夫 | 點檢

他人耶 | 리오) <小學5:94b>

원문이 『翻譯小學』과 『小學諺解』에서 어떤 순서로 번역되는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 豈 | 有 | 工夫 | 點檢 | 他人 | 耶 |
|-------|---|---|----|----|----|---|
| <翻譯小> | 1 | 5 | 4  | 3  | 2  | 6 |
| <小學>  | 1 | 5 | 2  | 4  | 3  | 6 |

<5> ‘何’

『翻譯小學』에서 대명사 ‘므스것’으로 번역되고 『小學諺解』에서 대명사 ‘므엇’으로 번역되는 ‘何’의 번역 순서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에서 잘 확인된다.

- (5) a. 구ㅎ면 므스거슬 얻디 못ㅎ며(亦何求不得이며) <翻譯小8:20a>  
 b. 또 브어슬 求ㅎ여 얻디 못ㅎ며(亦何求不得이며) <小學5:99a>
- (5) c. ㅎ고져 ㅎ면 므스거슬 일우디 못ㅎ리오마룬(何欲不遂 | 리오마룬)  
 <翻譯小 8:20a>  
 d. 브어슬 ㅎ고자 ㅎ여 일오디 못ㅎ리오마닌(何欲不遂 | 리오마닌) <小學 5:99a>

원문 중 ‘何求不得’과 원문 ‘何欲不遂’가 『翻譯小學』과 『小學諺解』에서 어떤 순서로 번역되는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 何 | 求 | 不 | 得 |
|-------|---|---|---|---|
| <翻譯小> | 2 | 1 | 4 | 3 |
| <小學>  | 1 | 2 | 4 | 3 |

|       | 何 | 欲 | 不 | 遂 |
|-------|---|---|---|---|
| <翻譯小> | 2 | 1 | 4 | 3 |
| <小學>  | 1 | 2 | 4 | 3 |

<6> ‘其中’

『翻譯小學』과 『小學諺解』에서 모두 명사구 ‘그 가운데’로 번역되는 ‘其

中'의 번역 순서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에서 잘 확인된다.

- (6) a. 벼슬 아니코 이셔 어딘 이를 그 가운데서 흐더니(隱居行義於其中 흐더니) <翻小9:98b>  
b. 그 가운데 숨어 살며 어딘 이(91a)를 行흐놋다(隱居行義於其中이 로다) <小學6:91b>

원문이 『翻譯小學』과 『小學諺解』에서 어떤 순서로 번역되는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隱 | 居 | 行 | 義 | 於 | 其 | 中 |
| <翻小> | 1 | 5 | 2 | 4 | 3 |   |   |
| <小學> | 3 | 5 | 4 | 2 | 1 |   |   |

#### <7> '物'

『翻譯小學』에서 명사 '것'으로 번역되고 『小學諺解』에서 명사 '物'로 번역되는 '物'의 번역 순서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에서 잘 확인된다.

- (7) a. 요괴로운 거시라 흐니(爲物之妖 | 라 흐니) <翻小10:18b>  
b. 物의 요괴를 삼으니(爲物之妖 흐니) <小學6:117a>

원문이 『翻譯小學』과 『小學諺解』에서 어떤 순서로 번역되는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   |   |   |   |
|------|---|---|---|---|
|      | 爲 | 物 | 之 | 妖 |
| <翻小> | 4 | 3 | 2 | 1 |
| <小學> | 4 | 1 | 2 | 3 |

## 2.2 動詞類의 번역 순서

동일 원문의 漢字와 번역되어 있는 언해문의 예문들을 통하여 『翻譯小學』과 『小學諺解』의 두 문헌에서 動詞類의 번역 순서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動詞類의 번역 순서는 動作動詞의 번역 순서, 動作動詞句의 번역 순서, 狀態動詞의 번역 순서로 나누어 비교해 보기로 한다.

### 2.2.1 動作動詞의 번역 순서

#### <1> ‘服’

『翻譯小學』에서 동작동사 ‘일하다’로 번역되고 『小學諺解』에서 동작동사 ‘복행하다’로 번역되는 ‘服’의 번역 순서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에서 잘 확인된다.

- (1) a. 일호몰 브즈러니 햏야 주구매 니르히 햏며(服勤至死 햏며) <翻譯小 3:42a>  
 b. 슈고로운 일을 복행햏야 죽음에 닐으며(服勤至死 햏며) <小學 2:72b>

원문이 『翻譯小學』과 『小學諺解』에서 어떤 순서로 번역되는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   |   |   |   |
|-------|---|---|---|---|
|       | 服 | 勤 | 至 | 死 |
| <翻譯小> | 1 | 2 | 4 | 3 |
| <小學>  | 2 | 1 | 4 | 3 |

#### <2> ‘視瞻’

『翻譯小學』과 『小學諺解』에서 모두 동작동사 ‘보다’로 번역되는 ‘視瞻’의 번역 순서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에서 잘 확인된다.

- (2) a. 눈 들어 보디 말며(視瞻母回 햏며) <翻譯小 4:12a>  
 b. 보기를 들우 말며(視瞻母回 햏며) <小學 3:11a>

원문이 『翻譯小學』과 『小學諺解』에서 어떤 순서로 번역되는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    |   |   |
|-------|----|---|---|
|       | 視瞻 | 母 | 回 |
| <翻譯小> | 2  | 3 | 1 |
| <小學>  | 1  | 3 | 2 |

#### <3> ‘教’

『翻譯小學』에서 동작동사 ‘그르치다’로 번역되고 『小學諺解』에서 동작

동사 ‘굴으치다’로 번역되는 ‘教’의 번역 순서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에서 잘 확인된다.

- (3) a. 오직 실혹오로 마르쳐 글 닐기를 즘탁하게 하고(只教以經學念書 | 언당) <翻譯小6:6a>  
b. 오직 經을 비화 글 외음으로써 굴으치고(只教以經學念書 | 오) <小學 5:6a>

원문 ‘只教以經學念書’에서 ‘教’의 번역 순서는 분절의 차이에 의해서 달라진다. 즉 『翻譯小學』에서는 ‘只教以經學’에서 끊어 읽지만 『小學諺解』에서는 끊어 읽지 않는다. 원문이 『翻譯小學』과 『小學諺解』에서 어떤 순서로 번역되는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只 | 教 | 以 | 經 | 學 | 念 | 書 |
| <翻譯小> | 1 | 5 | 4 | 2 | 3 | 7 | 6 |
| <小學>  | 1 | 7 | 6 | 2 | 3 | 5 | 4 |

#### <4> ‘疾’

『翻譯小學』과 『小學諺解』에서 동작동사 ‘의여흐다’로 번역되는 ‘疾’의 번역 순서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에서 잘 확인된다.

- (4) a. 이런 드로 넷 사르미 굽디 몬흐(25a)는 병과 울어디 몬흐는 병을 의여흐느니라(所以古人疾이 蘧篠與戚施흐느니라) <翻譯小6:25b>  
b. 씨 넷 사름의 의여흐는 배 蘧篠[굽디 몬흐는 병이라]와 다뭇 戚施 [젓디 몬흐는 병이라]니라(所以古人疾이 蘧篠與戚施니라) <小學 5:23b>

원문 ‘所以古人疾蘧篠與戚施’에서 ‘疾’의 번역 순서는 분절의 차이에 의해서 달라진다. 즉 『翻譯小學』에서는 끊어 읽지 않으면서 문장 제일 마지막에서 번역되지만 『小學諺解』에서는 ‘所以古人疾’에서 끊어 읽으면서 문장 앞부분에서 번역된다. 원문이 『翻譯小學』과 『小學諺解』에서 어떤 순서로 번역되는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所 | 以 | 古 | 人 | 疾 | 遽 | 條 | 與 | 戚 | 施 |
| <翻譯小> |  | 1 | 2 | 3 |   | 5 |   |   |   | 4 |   |
| <小學>  |  | 4 | 1 | 2 |   | 3 |   |   |   | 5 |   |

<5> ‘務’

『翻譯小學』에서 동작동사 ‘힘쓰다’로 번역되고 『小學諺解』에서 동작동사 ‘힘쓰다’로 번역되는 ‘務’의 번역 순서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에서 잘 확인된다.

- (5) a. 아버지 갖거호모로 힘서 일 사마 흥고(務以悅親오로 爲事 | 오) <翻譯小 7:4a>  
 b. 힘써 아버지를 갖기모로써 일 삼고(務以悅親爲事 | 오) <小學 5:3 7b>

원문 중 ‘務以悅親’이 『翻譯小學』과 『小學諺解』에서 어떤 순서로 번역되는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務’가 『翻譯小學』에서는 마지막에 번역되고 『小學諺解』에서는 처음에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  |   |   |   |   |
|-------|--|---|---|---|---|
|       |  | 務 | 以 | 悅 | 親 |
| <翻譯小> |  | 4 | 3 | 2 | 1 |
| <小學>  |  | 1 | 4 | 3 | 2 |

<6> ‘卑’

『翻譯小學』에서 동작동사 ‘느즈기하다’로 번역되고 『小學諺解』에서 동작동사 ‘느죽이하다’로 번역되는 ‘卑’의 번역 순서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에서 잘 확인된다. 『翻譯小學』에서는 문장 제일 처음에 번역되고 『小學諺解』에서는 문장 제일 마지막에 번역된다.

- (6) a. 스식으로 몸 가쥬(26b)물 느즈기하며(卑以自牧호야) <翻譯小8:27a>  
 b. 느죽이흠으로써 즈쳐하며(卑以自牧호며) <小學5:105b>

원문 중 ‘務以悅親’이 『翻譯小學』과 『小學諺解』에서 어떤 순서로 번역되는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   |   |   |   |
|-------|---|---|---|---|
|       | 卑 | 以 | 自 | 牧 |
| <翻譯小> | 4 | 3 | 1 | 2 |
| <小學>  | 1 | 2 | 3 | 4 |

<7> ‘譏’

『翻譯小學』과 『小學諺解』에서 모두 동작동사 ‘괴롱하다’로 번역되는 ‘譏’의 번역 순서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에서 잘 확인된다.

- (7) a. 사람이 괴롱호되 늑미 날 아로물 구(54a)티 아니한다 흐거늘(人 이 或譏其不求知者호대) <翻譯小9:54b>  
 b. 사람이 或 그 알음을 求티 아니호는 줄을 괴롱호거늘(人 이 或譏其不求知者 | 어늘) <小學6:50a>

원문 ‘人或譏其不求知者’에서 ‘譏’의 번역 순서는 분절의 차이에 의해서 달라진다. 즉 『翻譯小學』에서는 ‘人(或)譏’에서 끊어 읽으면서 앞부분에서 번역되지만 『小學諺解』에서는 끊어 읽지 않고 제일 마지막에서 번역된다. 원문이 『翻譯小學』과 『小學諺解』에서 어떤 순서로 번역되는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      |   |      |   |   |   |
|-------|------|---|------|---|---|---|
|       | 人(或) | 譏 | (其)不 | 求 | 知 | 者 |
| <翻譯小> | 1    | 2 | 6    | 5 | 4 | 3 |
| <小學>  | 1    | 6 | 4    | 3 | 2 | 5 |

<8> ‘出’

『翻譯小學』과 『小學諺解』에서 모두 동작동사 ‘나가다’로 번역되는 ‘出’의 번역 순서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에서 잘 확인된다. 『翻譯小學』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번역되고 『小學諺解』에서는 제일 처음에 번역된다.

- (8) a. 밥 어더 먹으라 나갓거늘(出求食이어늘) <翻譯小9:100a>  
 b. 나가 머굽을 求호거늘(出求食이어늘) <小學6:92b>

원문이 『翻譯小學』과 『小學諺解』에서 어떤 순서로 번역되는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   |   |   |
|--------|---|---|---|
|        | 出 | 求 | 食 |
| <翻譯小學> | 3 | 2 | 1 |
| <小學>   | 1 | 3 | 2 |

<9> ‘勸’

『翻譯小學』에서 동작동사 ‘권하다’로 번역되고 『小學諺解』에서 동작동사 ‘勸하다’로 번역되는 ‘勸’의 번역 순서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에서 잘 확인된다.

- (9) a. 인하야 글 비호라 권하니(因勸令學하야) <翻譯小10:6b>  
 b. 因하야 勸하야 히여곰 글 비호라 하야(因勸令學하야) <小學6:106b>

원문이 『翻譯小學』과 『小學諺解』에서 어떤 순서로 번역되는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   |   |   |   |
|-------|---|---|---|---|
|       | 因 | 勸 | 令 | 學 |
| <翻譯小> | 1 | 4 | 3 | 2 |
| <小學>  | 1 | 2 | 3 | 4 |

2.2.2 動作動詞句의 번역 순서

<1> ‘狎’

『翻譯小學』에서 동작동사구 ‘서르 무더니 너기다’로 번역되고 『小學諺解』에서 명사구 ‘설압흔 디’로 번역되는 ‘狎’의 번역 순서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에서 잘 확인된다.

- (1) a. 늑과 갓가이 하야 서르 무더니 너기게 말며(不旁狎하며) <翻譯小4:13b>  
 b. 설압흔 디 갓가이 아니하며(不旁狎하며) <小學3:12a>

원문이 『翻譯小學』과 『小學諺解』에서 어떤 순서로 번역되는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   |   |   |
|-------|---|---|---|
|       | 不 | 旁 | 狎 |
| <翻譯小> | 3 | 1 | 2 |
| <小學>  | 3 | 2 | 1 |

### <2> ‘醉’

『翻譯小學』에서 동작동사구 ‘취흔 듯ㅎ다’로 번역되고 『小學諺解』에서 동작동사 ‘醉ㅎ다’로 번역되는 ‘醉’의 번역 순서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에서 잘 확인된다.

- (2) a. 사르셔도 취흔 듯ㅎ며 주굽도 쉼 ㄹㅌ야(醉生夢死ㅎ야) <翻譯小8:42b>  
b. 醉ㅎ야 사랏고 쉼ㄹㅌ 죽어(醉生夢死ㅎ야) <小學5:120b>

원문이 『翻譯小學』과 『小學諺解』에서 어떤 순서로 번역되는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   |   |   |   |
|-------|---|---|---|---|
|       | 醉 | 生 | 夢 | 死 |
| <翻譯小> | 2 | 1 | 4 | 3 |
| <小學>  | 1 | 2 | 3 | 4 |

### <3> ‘味’

『翻譯小學』에서 동작동사구 ‘맛나게ㅎ다’로 번역되고 『小學諺解』에서 명사 ‘맛’으로 번역되는 ‘味’의 번역 순서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에서 잘 확인된다.

- (3) a. 아버의 음식은 ㄹ장 맛나게ㅎ더라(親極滋味ㅎ니라) <翻譯小9:28b>  
b. 아버이논 만난 마슬 極히ㅎ더라(親極滋味ㅎ더라) <小學6:25b>

원문이 『翻譯小學』과 『小學諺解』에서 어떤 순서로 번역되는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   |   |   |   |
|-------|---|---|---|---|
|       | 親 | 極 | 滋 | 味 |
| <翻譯小> | 1 | 3 | 2 | 4 |
| <小學>  | 1 | 4 | 2 | 3 |

<4> ‘馳’

『翻譯小學』에서 동작동사구 ‘흘러 가다’로 번역되고 『小學諺解』에서 동작동사 ‘들리다’로 번역되는 ‘馳’의 번역 순서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에서 잘 확인된다.

- (4) a. 동녕고로 아스라히 흘러 가(東馳遙遙흐야) <翻譯小9:98a>  
 b. 동녕크로 들리기를 아으라이 흐야(東馳遙遙흐야) <小學6:91a>

원문이 『翻譯小學』과 『小學諺解』에서 어떤 순서로 번역되는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   |   |    |
|-------|---|---|----|
|       | 東 | 馳 | 遙遙 |
| <翻譯小> | 1 | 3 | 2  |
| <小學>  | 1 | 2 | 3  |

2.2.3 狀態動詞의 번역 순서

<1> ‘宜’

『翻譯小學』에서 상태동사 ‘맛당흐다’로 번역되고 『小學諺解』에서 부사 ‘맛당히’ 또는 ‘맛당이’로 번역되는 ‘宜’의 번역 순서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에서 잘 확인된다.

- (1) a. 너희 뼈에 사겨 두미 맛당흐니라(爾宜刻骨이니라) <翻譯小6:20b>  
 b. 너희 맛당히 뼈의 사길 디니라(爾宜刻骨이니라) <小學5:19a>
- (1) c. 더욱 소히 흐야 브티디 아니호미 맛당흐니(尤宜疎絶이니) <翻譯小7:27b>  
 d. 더욱 맛당이 疎히 흐야 거절홀 디니(尤宜疎絶이니) <小學5:60a>
- (1) e. 집을 니유미 엇디 맛당흐료(屋何宜覆이리오) <翻譯小9:33a>  
 f. 집을 엇디 맛당히 덮프리오(屋何宜覆ㅣ리오) <小學6:30a>
- (1) g. 레도를 ㄹ장 호미 맛당흐니(所宜盡禮니) <翻譯小10:4b>  
 h. 맛당이 禮를 다홀 배니(所宜盡禮니) <小學6:104a>

원문이 『翻譯小學』과 『小學諺解』에서 어떤 순서로 번역되는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宜’가 『翻譯小學』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번역되고 『小學諺解』에서는 문장 제일 처음이나 중간 부분에서 번역된다.

|       | 宜 | 刻 | 骨 |
|-------|---|---|---|
| <翻譯小> | 3 | 2 | 1 |
| <小學>  | 1 | 3 | 2 |

|       | 尤 | 宜 | 疎 | 絶 |
|-------|---|---|---|---|
| <翻譯小> | 1 | 4 | 2 | 3 |
| <小學>  | 1 | 2 | 3 | 4 |

|       | 屋 | 何 | 宜 | 覆 |
|-------|---|---|---|---|
| <翻譯小> | 1 | 3 | 4 | 2 |
| <小學>  | 1 | 2 | 3 | 4 |

|       | 所 | 宜 | 盡 | 禮 |
|-------|---|---|---|---|
| <翻譯小> | 3 | 4 | 2 | 1 |
| <小學>  | 4 | 1 | 3 | 2 |

## <2> ‘珍’

『翻譯小學』에서 상태동사 ‘동다’로 번역되고 『小學諺解』에서 상태동사 ‘귀하다’로 번역되는 ‘珍’의 번역 순서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에서 잘 확인된다.

- (2) a. 도흔 고기 차반을 사다가(買魚肉珍羞하야) <翻譯小7:13b>  
 b. 물고기 물고기 귀흔 차반들흔 사다가(買魚肉珍羞하야) <小學5:46  
 b>

원문이 『翻譯小學』과 『小學諺解』에서 어떤 순서로 번역되는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 買 | 魚肉 | 珍 | 羞 |
|-------|---|----|---|---|
| <翻譯小> | 4 | 2  | 1 | 3 |
| <小學>  | 4 | 1  | 2 | 3 |

<3> ‘達’

『翻譯小學』에서 상태동사 ‘어달다’로 번역되고 『小學諺解』에서 상태동사 ‘현달하다’로 번역되는 ‘達’의 번역 순서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에서 잘 확인된다.

- (3) a. 어디단 소릭 나물 구티 아니흐더니(不求聞達흐더니) <翻譯小8:19b>  
 b. 들리여 현달흠을 求티 아니흐더니(不求聞達흐더니) <小學5:99a>

원문이 『翻譯小學』과 『小學諺解』에서 어떤 순서로 번역되는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   |   |   |   |
|-------|---|---|---|---|
|       | 不 | 求 | 聞 | 達 |
| <翻譯小> | 4 | 3 | 2 | 1 |
| <小學>  | 4 | 3 | 1 | 2 |

<4> ‘可’

『翻譯小學』에서 상태동사 ‘맛당하다’로 번역되고 『小學諺解』에서 부사 ‘可히’로 번역되는 ‘可’의 번역 순서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에서 잘 확인된다. 『翻譯小學』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번역되고 『小學諺解』에서는 제일 처음에 번역된다.

- (4) a. 도히 덕접호미 맛당흐니라(可善遇之니라) <翻譯小9:92a>  
 b. 可히 도히 덕접홀 디니라(可善遇之니라) <小學6:85b>

원문이 『翻譯小學』과 『小學諺解』에서 어떤 순서로 번역되는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   |   |   |   |
|-------|---|---|---|---|
|       | 可 | 善 | 遇 | 之 |
| <翻譯小> | 4 | 1 | 2 | 3 |
| <小學>  | 1 | 2 | 3 | 4 |

<5> ‘妖’

『翻譯小學』과 『小學諺解』에서 모두 상태동사 ‘요괴롭다’로 번역되는 ‘妖’의 번역 순서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에서 잘 확인된다.

- (5) a. 빗나미 보비두곤 더 요괴로오물 아디 몰흐두다(不知…赫之妖 | 甚

- 於物耶 ㄱ더) <翻譯小10:18b>  
b. 빛남의 요괴로움이 物두곤 甚흔 줄을 아디 못흐냐(不知…赫之妖 | 甚於物耶아) <小學6:117b>

원문 ‘不知…赫之妖甚於物耶’에서 ‘妖’의 번역 순서는 분절의 차이에 의해서 달라진다. 즉 『翻譯小學』에서는 ‘不知’에서 끊어서 읽고 『小學諺解』에서는 ‘赫之妖’에서 끊어 읽으면서 앞부분에서 번역된다. 원문이 『翻譯小學』과 『小學諺解』에서 어떤 순서로 번역되는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                            |
|-------|----------------------------|
|       | 不 知 … 赫 之 妖 甚 於 物 耶        |
| <翻譯小> | 7      1 2   6 5   4 3   8 |
| <小學>  | 7      1 2   3 6   5 4   8 |

### 2.3 副詞類의 번역 순서

『翻譯小學』과 『小學諺解』에서 副詞類로 번역된 漢字나 漢字語의 번역 순서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副詞類는 時間副詞, 樣態副詞, 性狀副詞, 副詞語句 등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2.3.1 時間副詞의 번역 순서

##### <1> ‘先’

『翻譯小學』에서는 시간부사 ‘먼저’로 번역되고 『小學諺解』에서 동작동사구 ‘먼저 하다’로 번역되는 ‘先’의 번역 순서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에서 잘 확인된다.

- (1) a. 모로매 효되며 공순흐며 통심드외며(5a) 유신흐며 례되며 올흔 이리며 청념흐며 붓그리는 일들홀 먼저 써 홀 디니(必先以孝弟忠信禮義廉恥等事 | 니) <翻譯小6:5b>  
b. 반드시 효도흐며 손순흐며 통성되며 믿브며 례절이며 올흔 일이며 청념흐며 붓그리는 일들로써 먼저 홀 디니(必先以孝弟忠信禮義廉恥等事 | 니) <小學5:5a>

원문이 『翻譯小學』과 『小學諺解』에서 어떤 순서로 번역되는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   |   |   |            |
|-------|---|---|---|------------|
|       | 必 | 先 | 以 | 孝弟忠信禮義廉恥等事 |
| <翻譯小> | 1 | 3 | 4 | 2          |
| <小學>  | 1 | 4 | 3 | 2          |

<2> ‘永’

『翻譯小學』에서 시간부사 ‘영히’로 번역되고 『小學諺解』에서 시간부사 ‘영영히’로 번역되는 ‘永’의 번역 순서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에서 잘 확인된다. 『翻譯小學』에서는 동작동사 ‘덜다’ 바로 앞에서 번역되고 『小學諺解』에서는 문장 제일 처음에 번역된다.

- (2) a. 그 집 구실을 영히 덜라 하시니라(永蠲其家丁役하시다) <翻譯小9:67 a>  
 b. 영영히 그 집 스나히 구실을 더르시다(永蠲其家丁役하시다) <小學 6:61b>

원문이 『翻譯小學』과 『小學諺解』에서 어떤 순서로 번역되는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   |   |   |   |    |
|-------|---|---|---|---|----|
|       | 永 | 蠲 | 其 | 家 | 丁役 |
| <翻譯小> | 4 | 5 | 1 | 2 | 3  |
| <小學>  | 1 | 5 | 2 | 3 | 4  |

2.3.2 樣態副詞의 번역 순서

<1> ‘必’

『翻譯小學』과 『小學諺解』에서 각각 당위를 나타내는 양태부사 ‘모로매’와 ‘반드시’로 번역되는 ‘必’의 번역 순서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에서 잘 확인된다.

- (1) a. 모로매 소리를 내여 앞에 흘 디니(聲必揚이니) <翻譯小4:11b>  
 b. 소리를 반드시 들며(聲必揚하며) <小學3:10b>

원문이 『翻譯小學』과 『小學諺解』에서 어떤 순서로 번역되는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   |   |   |
|------|---|---|---|
|      | 聲 | 必 | 揚 |
| <翻小> | 2 | 1 | 3 |
| <小學> | 1 | 2 | 3 |

<2> ‘能’

『翻譯小學』과 『小學諺解』에서 각각 가능을 나타내는 양태부사 ‘능히’와 ‘能히’로 번역되는 ‘能’의 번역 순서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에서 잘 확인된다. 『翻譯小學』에서는 동작동사 ‘능죽하다’ 바로 앞에서 번역되고 『小學諺解』에서는 부사어 ‘변의게’ 및 부사어구 ‘天下의 어딘 사람의게’ 바로 앞에서 번역된다.

- (2) a. 버디게 능히 능죽디 아니호고(不能下朋友호고) <翻小6:3b>  
 b. 能히 변의게 능리디 못호고(不能下朋友호고) <小學5:3b>
- (2) c. 텃헛 어딘 사람의게 능히 능죽디 아니 호느니라(不能下天下之賢이니라) <翻小6:4a>  
 d. 能히 天下의 어딘 사람의게 능리디 못호느니라(不能下天下之賢이니라) <小學5:3b>

원문들 ‘不能下朋友’와 ‘不能下天下之賢’이 『翻譯小學』과 『小學諺解』에서 어떤 순서로 번역되는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   |   |   |           |
|------|---|---|---|-----------|
|      | 不 | 能 | 下 | <u>朋友</u> |
| <翻小> | 4 | 2 | 3 | 1         |
| <小學> | 4 | 1 | 3 | 2         |

|      |   |   |   |             |
|------|---|---|---|-------------|
|      | 不 | 能 | 下 | <u>天下之賢</u> |
| <翻小> | 4 | 2 | 3 | 1           |
| <小學> | 4 | 1 | 3 | 2           |

<3> ‘實’

『翻譯小學』과 『小學諺解』에서 모두 양태부사 ‘진실로’로 번역되는 ‘實’의 번역 순서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에서 잘 확인된다.

- (3) a. 스기이를 진실로 혼가지로 호니(實同史事호니) <翻小9:48a>  
 b. 진실로 스기일을 혼가지로 호니(實同史事호니) <小學6:44a>

원문이 『翻譯小學』과 『小學諺解』에서 어떤 순서로 번역되는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   |   |   |   |
|------|---|---|---|---|
|      | 實 | 同 | 史 | 事 |
| <翻小> | 3 | 4 | 1 | 2 |
| <小學> | 1 | 4 | 2 | 3 |

### 2.3.3 性狀副詞의 번역 순서

#### <1> ‘大’

『翻譯小學』에서 성상부사 ‘大’로 번역되고 『小學諺解』에서 성상부사 ‘키’로 번역되는 ‘大’의 번역 순서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에서 잘 확인된다. 『翻譯小學』에서는 상태동사 ‘다르다’ 바로 앞에서 번역되고 『小學諺解』에서는 문장 제일 처음에 번역된다.

- (1) a. 상넛 사름두곤 大장 다르더시다(大異衆人호더시다) <翻小9:5b>  
 b. 키 모든 사름에서 다르니라(大異衆人호니라) <小學6:5a>

원문이 『翻譯小學』과 『小學諺解』에서 어떤 순서로 번역되는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   |   |   |   |
|------|---|---|---|---|
|      | 大 | 異 | 衆 | 人 |
| <翻小> | 2 | 3 | 1 |   |
| <小學> | 1 | 3 | 2 |   |

#### <2> ‘皆’

『翻譯小學』과 『小學諺解』에서 모두 성상부사 ‘다’로 번역되는 ‘皆’의 번역 순서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에서 잘 확인된다.

- (2) a. 가히 다 堯舜이 도일 거시라 니르니(皆可以爲堯舜이라 호니) <翻小9:82b>  
 b. 다 可히 卞 堯舜이 되리라 호니(皆可以爲堯舜이라 호니) <小學>

6:76b>

원문이 『翻譯小學』과 『小學諺解』에서 어떤 순서로 번역되는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   |   |      |
|------|---|---|------|
|      | 皆 | 可 | 以爲堯舜 |
| <翻小> | 2 | 1 | 3    |
| <小學> | 1 | 2 | 3    |

### 2.3.4 副詞語句의 번역 순서

#### <1> ‘所’

『翻譯小學』에서는 부사어구 ‘이런 드로’로 번역되는 ‘所以’의 ‘所’와 『小學諺解』에서 명사 ‘바’로 번역되는 ‘所’의 번역 순서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에서 잘 확인된다. 『翻譯小學』에서는 문장 제일 처음에 번역되고 『小學諺解』에서는 문장 제일 마지막에 번역된다.

- (1) a. 이런 드로 어딘 사르의 막스문 집고 너버 물근 물 마트니라(所以君子心은 汪汪淡如水 | 니라) <翻小6:25a>  
 b. 씨 君子의 막음이 汪汪[집고 너른 양이라] 햐야 몹음이 물근튼 배니라(所以君子心이 汪汪淡如水 | 니라) <小學5:23a>
- (1) c. 이런 드로 馬援이 그리 브즈러니 모든 즈(25b)데를 警戒햐니라(所以 馬援書 | 殷勤戒諸子햐니라) <翻小6:26a>  
 d. 씨 馬援의 글월이 殷勤히 모든 즈데를 警戒햐 배니라(所以馬援書 | 殷勤戒諸子 | 니라) <小學5:24a>

원문들이 『翻譯小學』과 『小學諺解』에서 어떤 순서로 번역되는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所 | 以 | 君子 | 心 | 汪汪 | 淡 | 如 | 水 |
| <翻小> | 1 | 2 | 3  | 4 | 5  | 6 | 8 | 7 |
| <小學> | 8 | 1 | 2  | 3 | 4  | 5 | 7 | 6 |

|      | 所 | 以 | 馬 | 援 | 書 | 殷 | 勤 | 戒 | 諸 | 子 |
|------|---|---|---|---|---|---|---|---|---|---|
| <翻小> | 1 | 2 | 3 | 4 | 5 | 8 | 6 | 7 |   |   |
| <小學> | 8 | 1 | 2 | 3 | 4 | 7 | 5 | 6 |   |   |

### 3. 결론

지금까지 『小學集成』을 저본으로 하고 있는 『翻譯小學』(1518)과 『小學集註』를 저본으로 하고 있는 『小學諺解』(1588)의 現存本 全卷 중 동일 원문 漢字와 동일 내용이 대응되는 부분을 대상으로 비교하여 두 문헌에 언해되어 있는 번역 순서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실증적으로 밝혀 보았다.

이 두 문헌을 비교해 본 결과 『翻譯小學』에서는 意譯 형태로 언해를 하고 『小學諺解』에서는 直譯 형태로 언해를 하였기 때문에 번역 순서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가 있다. 번역 순서가 달라지는 경우를 名詞類, 動詞類, 副詞類로 나누어 고찰하였는데 특히 動詞類의 번역 순서는 끊어 읽기에 차이를 두으로써 번역 순서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수 확인되었다.

『妙法蓮華經』을 저본으로 意譯과 直譯으로 언해된 15세기 문헌의 『月印釋譜』와 『法華經諺解』의 번역 순서 비교 연구에서는 『月印釋譜』에 비해 『法華經諺解』가 체재에 있어서 口訣文이 함께 실리고, 그에 따른 번역을 하기 때문에 口訣文의 표기가 언해문에 영향을 미쳐 口訣에 충실한 直譯의 번역 양상이 두드러지고 『月印釋譜』에서는 언해자의 문체 의식이 가미된 意譯의 번역 양상을 취하게 되어 번역 순서에 큰 영향을 주었다.<sup>4</sup> 본 연구의 대상 문헌인 『翻譯小學』과 『小學諺解』의 번역 순서 대비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두 문헌의 원문의 漢字는 동일하지만 두 문헌의 원문에 있는 口訣文의 많은 부분이 相異하기 때문에 언해자가 번역을 할 때 번역 순서의 차이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두 문헌의 원문뿐만 아니라 口訣文이 동일한 경우에도 번역 순서가 달라지는 경우를 상당수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번역할 때 동일 원문을 대하는 언해자의 입장이나 기호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注

- 1 安秉禧 1973. 「中世國語 研究資料의 性格에 대한 研究-翻譯 樣式을 중심으로 하여-」 『어학연구』 9-1 : 2-3
- 2 본고에서는 名詞類의 범위에 名詞, 名詞句, 依存名詞, 代名詞를 포함시켰다.
- 3 ( ) 안에 있는 漢字는 『翻譯小學』에서 번역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번역 순서에서 제외시켰다.
- 4 權和淑 2010. 「『月印釋譜』와 『法華經諺解』의 國語學的 比較 研究」韓國外國語大學校 博士學位論文 98-99.

參考文獻

- 權和淑 2003. 「『月印釋譜』 卷 15와 『法華經諺解』의 比較 研究」韓國外國語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權和淑 2010. 「『月印釋譜』와 『法華經諺解』의 國語學的 比較 研究」韓國外國語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김한숙 1988. 「『翻譯小學』과 『小學諺解』의 比較 研究」 『돈암어문학』 Vol.-No.1.
- 南星祐 2007. 『국어사 연구와 자료』 태학사.
- 南星祐 2007. 『中世國語 文獻의 翻譯 研究』 제이앤씨.
- 安秉禧 1973. 中世國語 研究資料의 性格에 대한 研究 - 翻譯樣式을 중심으로 하여 - 『語學研究』 Vol.9 No.1.
- 이기문 1960. 「소학언해에 대하여」 『한글』 Vol.-No127.
- 이효인 2000. 「『翻譯小學』과 『小學諺解』의 비교 고찰」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혜린 2009. 「『번역소학』과 『소학언해』의 구문 번역 양상 연구」- 한문 원문의 'V1V2' 구성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허재영 1998. 「『번역소학』과 『소학언해』의 비교 연구」 『국어교육』 Vol.-No.97.
- 翻譯小學(影印本) 卷 3, 4, 6, 7, 8, 9, 10
- 小學諺解(影印本) 卷 2, 3, 5, 6
- 南廣祐 1997. 『教學古語辭典』 教學社.